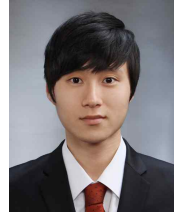




2012년(제54회) 사법시험 수석합격 이 호 영

-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2년 재학 중



Q 축하드립니다. 수석소감에 대해서 ...

A 셋째 날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실수를 범해서 발표날까지 마음을 졸였었는데 심지어 수석합격을 하다니 믿어지지 않네요.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났었는데 이제야 조금 현실이구나 싶습니다.

Q 지금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재학중이신데요.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된 동기가 궁금하고, 그러한 동기가 본격적인 수험공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예컨대, 로스쿨 제도로 인해 사법시험 합격자수가 연차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사법시험이 아닌 로스쿨 진학을 목표로 할 것인지, 합격자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수험생들중 상당수가 2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1차 수험생으로 진입하는 것에 대한 부담 등).

A 고등학교 때 사회탐구 선택과목으로 법과 사회를 공부하면서 처음 법 공부를 접했습니다. 강사의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면서 흥미를 느끼게 됐고 막연히 사법시험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을 들어가던 해에 로스쿨이 생기면서 법대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회과학대학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사회대의 많은 학생들처럼 행정고시를 생각해보기도 했었는데 대학 입학 전 잠깐 접해 본 법 사법시험 공부에 흥미를 느껴서 본격적으로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09학번인데 제 동기들 중에는 처음

부터 로스쿨로 방향을 잡았고 현재 로스쿨에 합격한 친구들도 있는데요, 저도 물론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나 3년동안 꾸준히 학점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시험을 치루는 것이 제 적성에 맞는 듯 했고, 무엇보다 시도조차 없이 포기하기는 아쉬웠기 때문에 사법시험에 뛰어들었습니다.

Q 과목별 사법시험 '1차 시험'의 공부과정이 궁금합니다(공부기간, 과목별 학습 방법 등). 그리고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과목은 어떤 과목이고 극복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A 공부순서는 형법-헌법-민법이었습니다. 2009년 여름에 시작했는데요, 신호진 강사의 형법 강의를 인터넷으로 들었습니다. 연말에는 김현석 강사의 헌법 강의를 그리고 2010년 5월 경까지는 권순환 강사의 민법 강의를 들었습니다. 비록 1년에 육박하는 기간이었지만 내내 학교를 다녔고 많은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공부의 정도는 매우 느슨했습니다. 오전에 강의 4개 정도를 듣고 수업을 갔다가 귀가하는 형태였고 예습이나 복습은 거의 못했습니다.

2010년 여름에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세 과목 가운데 가장 어렵게 느꼈던 것은 헌법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내용이 추상적이고 부속 법령이라는 무시무시한 부분이 도사리고 있어서였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다시 한번 듣기로 하고 7월부터 금동흙 강사의 강의를 실강으로 수강했습니다. 이때는 오전에 강의를 듣고 오후에 돌아와서 복습을 하는 형태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토요일에는 해당 주의 내용을 복습하는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헌법에 대한 자신감이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헌법 종강 후에는 권순환 강사의 친족상속법과 이종훈 강사의 국제법을 실강으로 수강했고 동일한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이때 공부시간은 강의를 제외하고 6시간 정도였습니다.

2010년 9월부터는 진도별 모의고사를 다녔습니다. 진도별 모의고사를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수험생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아는데 제 경험상 진도를 밀리지 않고 꾸준히 참석만 한다면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매일 진도를 밀리지 않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이 3개월만 버티 내면 기본3법에 대한 실력이 크게 향상된다고 봅니다. 이때 저는 시험을

보고 기본서를 복습하는 강의를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강의는 제가 잘 모르겠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만 골라서 들었습니다. 강의까지 전부 듣고 다음날 진도를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많은 날에는 시험만 치루고 바로 다음날 예습을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2달 정도의 기간에는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기본서를 봤습니다. 굳이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속도를 최대한 내서 볼 수 있는 만큼만 보자는 주의였습니다. 그 결과 각 과목당 3회독씩은 했습니다. 속도를 내기 위해서 형광펜으로 모르는 부분을 눈에 띄게 색칠해서 마지막에는 색칠된 부분만을 공부했습니다.

Q 2차 시험의 경우도 '재시'로 합격하셨는데요. 과목별 공부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득점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2차 공부를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A 2차 시험은 기본3법과 후4법으로 나뉘는데, 공부방법은 민법·형법·헌법·후4법의 3가지 형태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민법과 형법의 경우 1차를 공부하면서 외웠던 많은 판례의 대다수를 버리고 중요 판례만을 기억해서 이를 논리적으로 배열하고 사안에서 그 논리를 도출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윤동환 강사의 민법의 맥을 가지고 공부했는데 전반적으로 강약조절이 분명하게 돼 있어서 좋았습니다. 민법 사례를 풀 때에는 그림을 그려놓고 크게 누구와 누구의 이해가 대립되는지 즉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잡한 사례일수록 큰 틀부터 접근해야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민법의 내용이 어느 정도 숙지되어야 하는데요, 민법이 150점인만큼 2순환, 3순환에 걸쳐서 매일 한시간정도 민법 기본서를 읽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읽은 결과 마지막에 가보니 교재의 전반적인 구조가 파악됨과 함께 내용도 숙달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형법은 이재상 강사의 더형법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형법에서 중요한 점은 수많은 학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 같습니다. 이재상 강사도 누누이 언급했지만 학설은 진짜 중요한 것 3개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답안지에 학설은 제목만 서술했고 통설인 경우에만 그 내용을 서술했습니다. 민법이나 형법이나 중요한 것은 판례이기 때문에 학설 대신 판례 암기에 치중했습니다.

헌법은 기본3법이지만 후4법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암기가 요구했습니다. 김유향 강사의 핵심정리 노트를 수시로 가지고 다니면서 1순환부터 암기에 힘썼는데, 마지막에 가서도 불안한 부분이 있었지만 대강의 내용은 암기한 채로 시험에 임했습니다. 헌법에서 핵심은 과잉금지원칙으로 사안을 포섭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개별 기본권에 대한 일반론은 사안과 무관하고 지루해보일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본권의 일반론은 통목차로 많아야 4줄 정도로 서술했고 과잉금지원칙의 검토에 집중했습니다. 반면에 통치구조 문제에서는 일반론의 암기가 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올해 1문에서도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일반론을 암기하지 못했다면 쓸 말이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4법의 경우, 민소는 이창한 강사, 상법은 김혁봉 강사, 형소법은 정주형 강사, 행정법은 류준세 강사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후4법의 공통된 느낌은 암기한 것을 막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학설 판례 검토의 기계적 암기를 요하고 그것을 답안지에 그대로 현출해야 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학설 판례 검토가 주가 되서는 안 되고 사안의 포섭이 40%~50%를 차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작 문제를 ‘푼’ 부분은 사안의 포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제를 ‘풀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기 위해서는 문제의 소재 부분에서 등장인물의 이름을 적극 활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순환별로 보자면 1순환 때는 기본적인 내용의 이해에 충실했고, 2순환 때는 기본적인 암기를, 3순환 때는 완전한 암기를 목표로 했습니다. 물론 3순환이 끝나서도 완전한 암기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시험 직전에서는 어느 정도 암기가 됐었습니다. 2,3순환은 강평반을 들으면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부분은 그날 그날 바로 강사님께 찾아가서 질문을 해서 의문을 해소했습니다.

Q 수험기간 동안 누구나 슬럼프가 찾아오게 마련인데,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대처하거나 극복하셨는지요.

A 생각보다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올 때 슬럼프가 올 수 있습니다. 저는 혹여나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답안지를 사실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고, 다음날 채점결과를 받아보면 다음날의 진도에 밀려서 제대로 된 검토를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당일엔 바로 가져와서 모

범답안과 비교해가며 스스로 제 답안지를 검토했습니다.
3순환을 거치면서 엄청난 공부량에 압도되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때는 함께 공부하는 친구를 만나서 고기라도 구워먹으며 스트레스를 풀고는 했습니다.

Q 스터디나 학원의 활용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스터디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스터디를 다니며 소요될 부수적인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학원은 수험기간 내내 정해진 스케줄대로 다녔습니다. 다년간의 경험이 축적된 결과인지 학원 스케줄대로 공부하니 시험 때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직접 강사님들에게 모르는 것을 질문함으로써 학습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Q 3차 면접의 경우 어떻게 대비하셨고, 실제 면접은 어떻게 치르셨는지요.

A 3차 면접이 다가오면서 준비를 해야겠다는 압박감 하에 법률저널에서 준 자료집과 기본서를 펼쳐봤으나 현실적으로 공부는 거의 못했습니다. 공부를 하는 대신에 깔끔한 용모와 당당한 태도를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실제로 면접시험날에는 매우 긴장이 됐었는데 집단토론에서는 심사위원들께서 온화하게 진행해주신 덕분에 무난하게 각자 2~3번 발언을 하고 끝났습니다. 개인면접에서도 목소리를 크게 당당하게 대답했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고민하고 있음을 최대한 보여드렸습니다.

Q 판사, 검사, 변호사 중 선호하는 직역과 선호이유 및 향후 되고자 하는 법조인 상은 어떠세요.

A 연수원 수료 후에는 검사가 되고 싶습니다. 최근 검찰에서 많은 문제들이 터졌고 검찰개혁이 논의되고 있는데 검사가 돼서 이런 부조리들을 바로 잡고 정말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을 만들고 싶습니다. 검사 생활을 하다가는 경력판사 임관을 신청해 볼 생각입니다. 판사가 되어 양쪽의 주장을 공평하게 듣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 당사자들의 분쟁을 불만없이 해결해주고 싶습니다.

Q 사법시험 수험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선발인원이 축소되는 마당에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다만 그만큼 신규진입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독기를 품고 하신다면 사법시험이 사라질 때까지는 합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Q 감사해야 할 분들에게 한 말씀해주세요.

A 누구보다도 수험기간 동안 정신적 물질적으로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부모님께 모든 영광을 바칩니다. 그리고 유쾌하게 스트레스를 풀어주던 동생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 종종 모여 힘을 북돋아주던 친구들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